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제102차 CATI조사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이념성향별 응답자 비율

CATI	22.4	43.6	27.9	6.1
------	------	------	------	-----

CATI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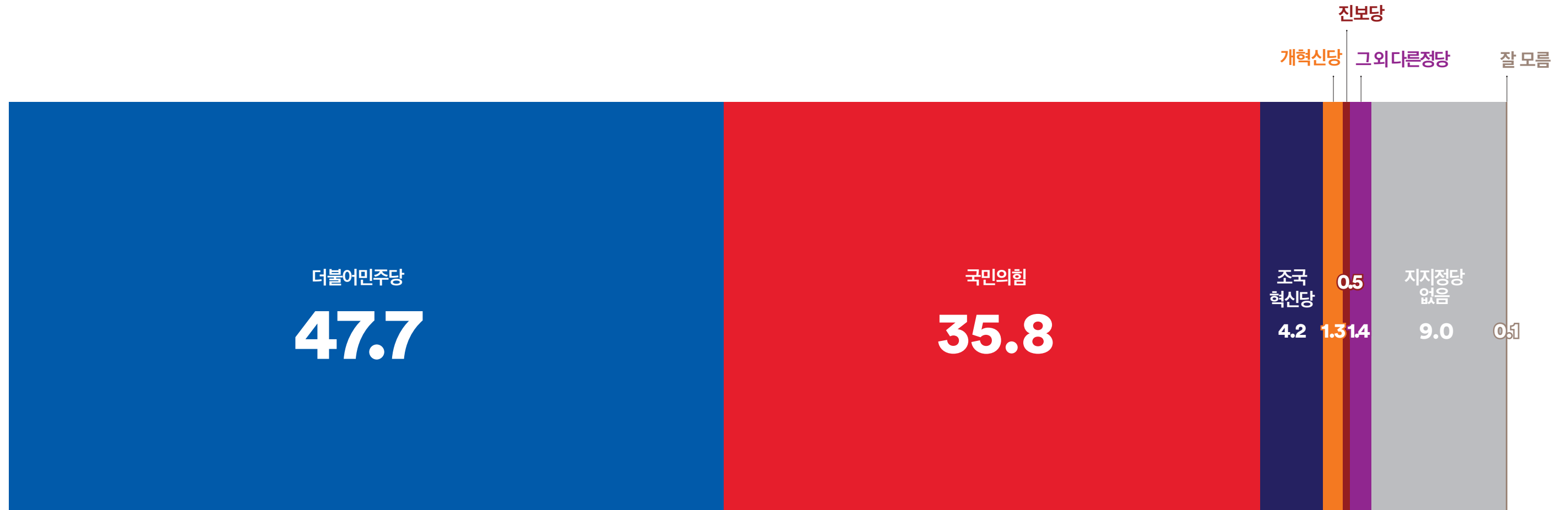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 비율		성별	지역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B/A)	(B/A)		
			전체	1004	100.0	1004	100.0	1.00	1.00		
			성별	남성	495	49.3	497	49.5	1.00		
표본크기	1,004명		여성	509	50.7	507	50.5	0.99	0.99	49.3% 남성	50.7% 여성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연령	18-29세	156	15.5	155	15.4	0.99		
표집방법	성별, 연령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30대	151	15.0	150	14.9	0.99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29,999개 / SKT: 15,000, KT: 9,000, LGU+: 5,999)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40대	173	17.2	174	17.3	1.00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5년 1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50대	198	19.7	197	19.6	0.99		
응답률	14.0% [총 통화시도 7,191명]			60대	177	17.6	178	17.7	1.00		
조사기간	2025년 2월 14일 ~ 2월 15일(2일간)		지역	70세 이상	149	14.8	150	14.9	1.00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서울	189	18.8	187	18.6	0.98		
				인천·경기	324	32.3	325	32.4	1.00		
				대전·세종·충청	106	10.6	109	10.9	1.02		
				광주·전라	96	9.6	97	9.7	1.01		
				대구·경북	100	10.0	98	9.8	0.98		
				부산·울산·경남	148	14.7	147	14.6	0.99		
				강원·제주	41	4.1	41	4.1	1.00		

WWW.
FLOWERRESEARCH.
COM

본 조사 결과의 저작권은 (주)여론조사꽃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수정은 불가하며,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주)여론조사꽃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 출처에 대한 명기와 함께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제3항에 따라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원서', '조사방법',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반드시 준수하여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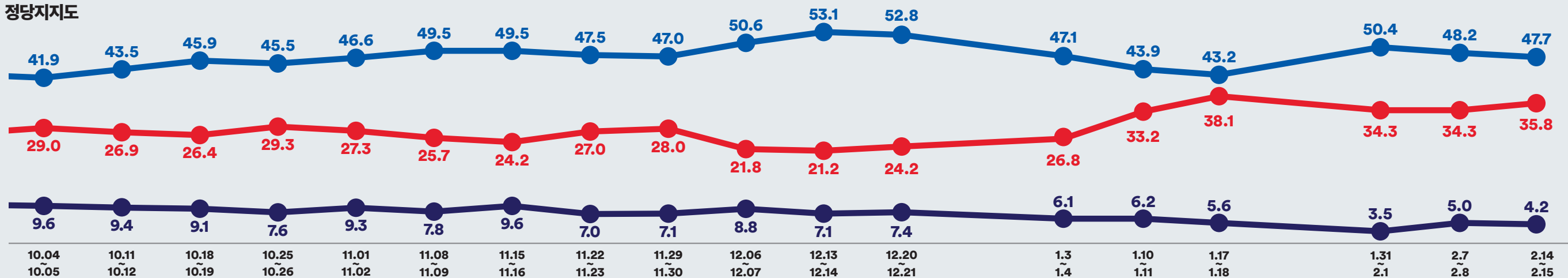
본 조사결과는 표본조사이므로 결괏값 해석 시 표본오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통계보정을 위해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성·연령대·지역(권역)별 사후가중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례수가 30명 미만일 경우, 이상치(outlier: 변수의 분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분포를 벗어난 값)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괏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단순 합산 시 반올림 오차(round-off error)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 항목의 단순 합은 100.0%가 아닌 99.9% 또는 100.1%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당지지도와 국정운영 평가는 재질문을 포함한 결과입니다.
본 보고서에서 언급되는 '무당층'은 보기에서 '지지 정당 또는 후보가 없다'라고 응답한 계층을 의미합니다.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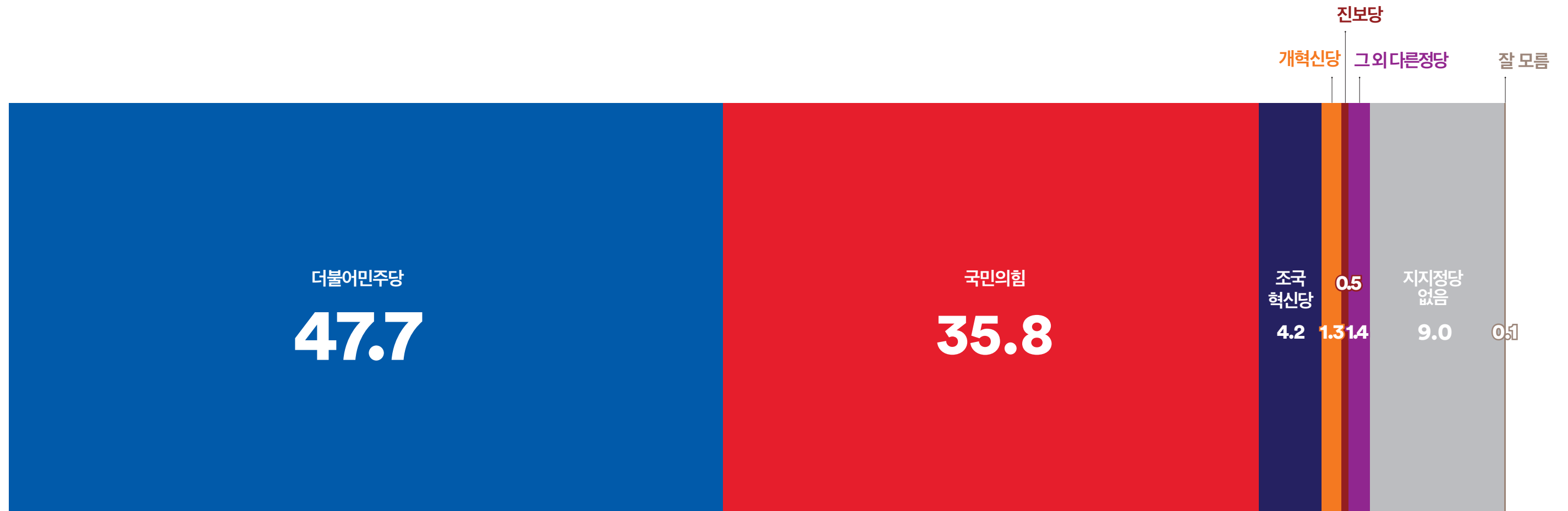
101차 CATI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0.5%p 하락, '국민의힘' 1.5%p 상승, '조국혁신당' 0.8%p 하락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간 격차는 11.9%p (지난 조사: 13.9%p)
 '더불어민주당' +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간 격차는 16.1%p (지난 조사: 18.9%p)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모두 '국민의힘' 대비 우세

주차별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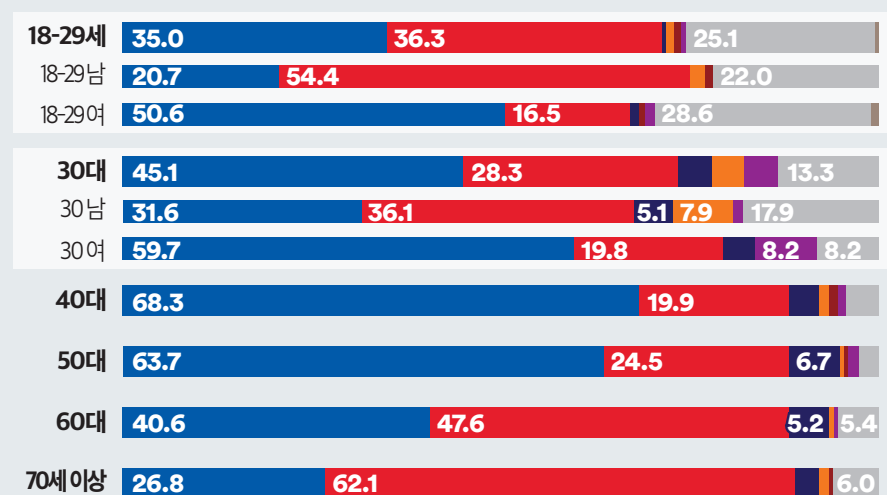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그외 다른정당 지지정당 없음 잘 모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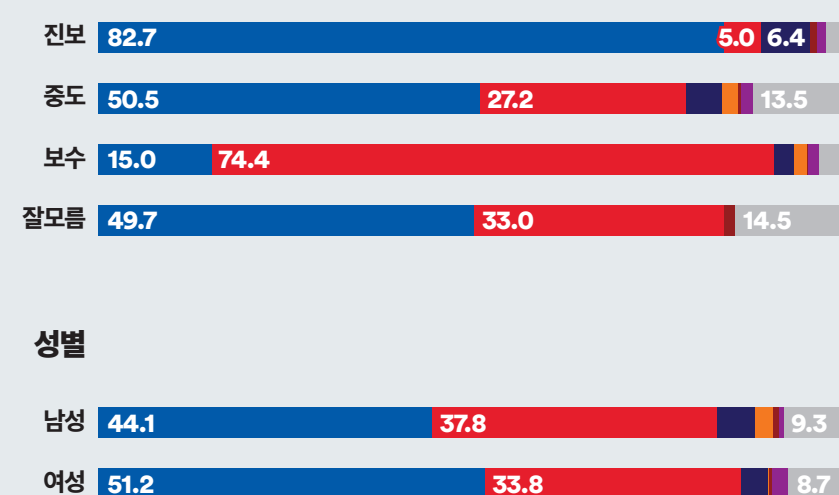


TK·PK를 제외한 나머지 권역과 50대 이하 응답층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거나 우세
'국민의힘'은 TK, PK, 60대 이상 응답층과 보수층에서 앞서거나 우세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50.5%, '국민의힘' 27.2%, '조국혁신당' 4.7%
중도층에서의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간 격차는 23.3%p(지난 조사: 18.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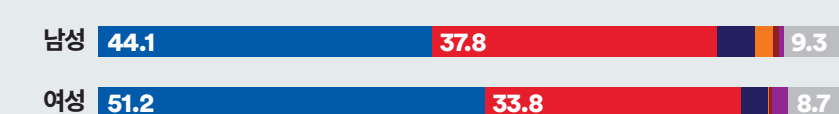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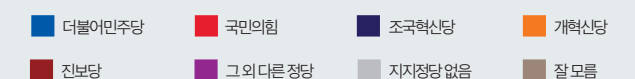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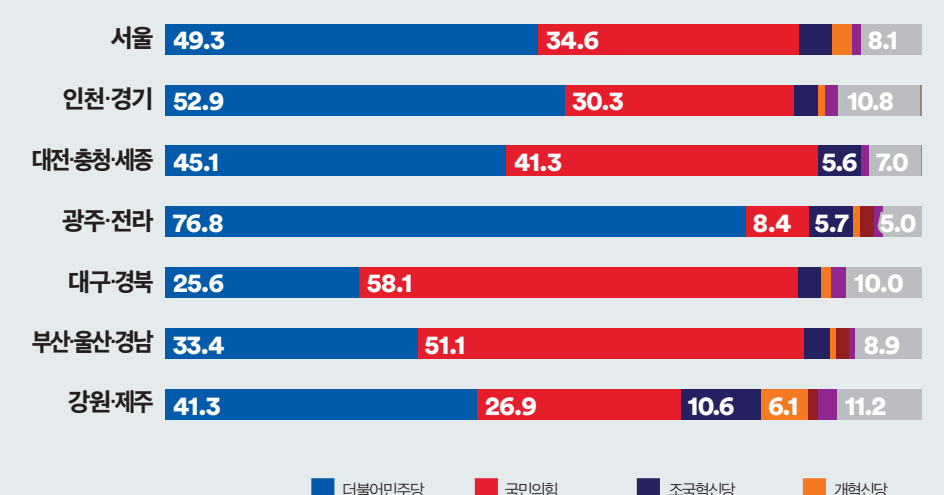
이념성향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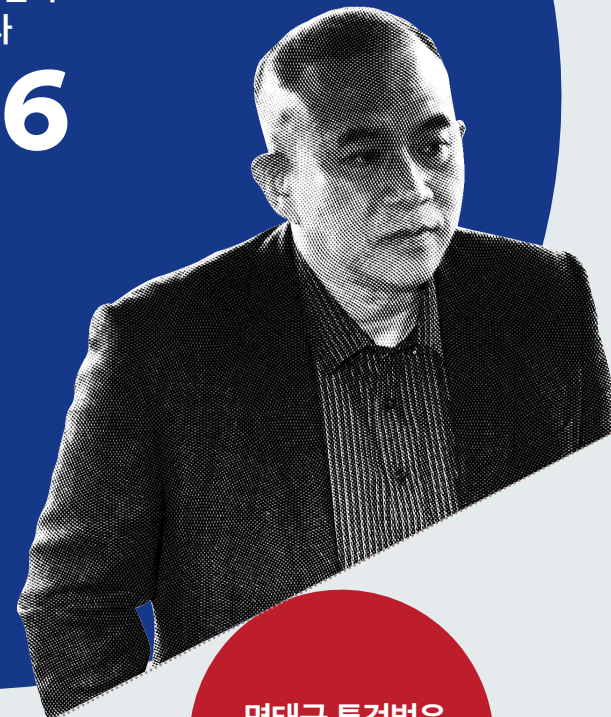


권역



Q.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명태군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태군 특검법이
필요하다
7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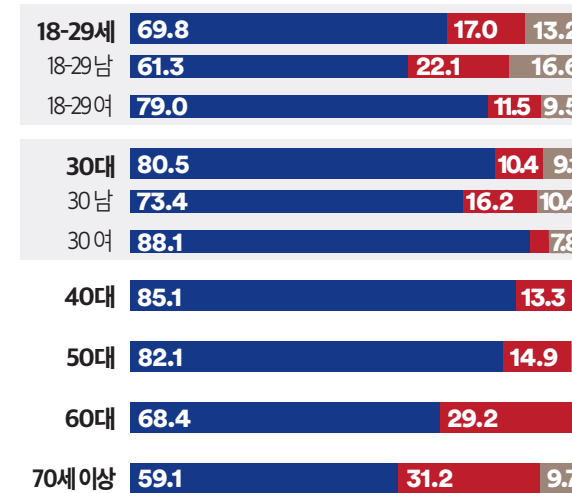
“명태군 특검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다.
언론에 내 뜻을 여러 번 밝혔다.
공천개입, 국민의힘 대선 경선,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조작 여론조사, 창원 국가산단, 감사의 황금폰 증거인멸교사,
오세훈·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명태군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특검 내용에 꼭 포함시켜달라”
[2025년 2월 11일 명태군씨의 옥중 서신 내용 중]

명태군 특검법은
필요없다
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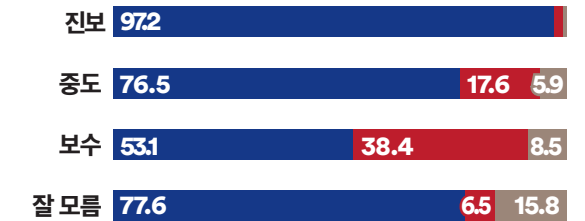
6.1 — 잘 모름

명태군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 전체 응답자 4명 중 3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응답(응답 간 격차: 55.4%p)
모든 권역과 모든 연령층·이념층·직업층, 정치관심도에 상관없이 ‘명태군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응답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두 의견이 팽팽하게 갈림(필요 43.1% / 불필요 45.7%)
18-29세 남성층에서는 동일 연령대의 여성층보다 ‘불필요’의견이 소폭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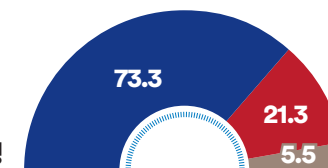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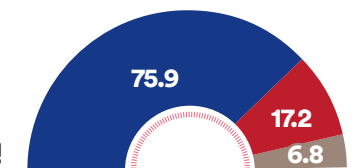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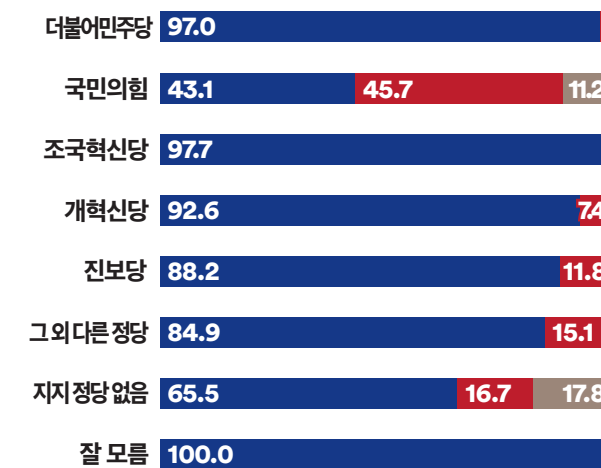
성별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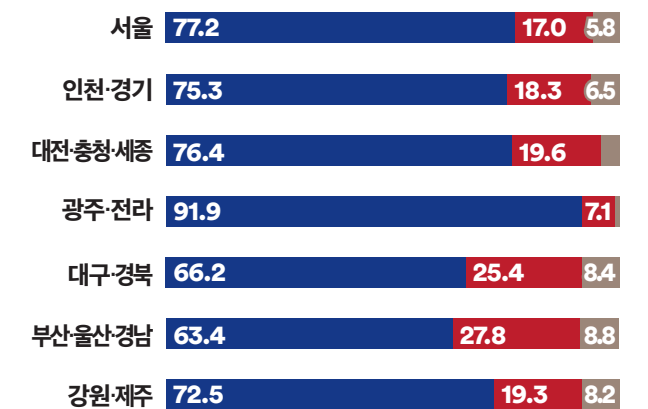
여성



정당지지도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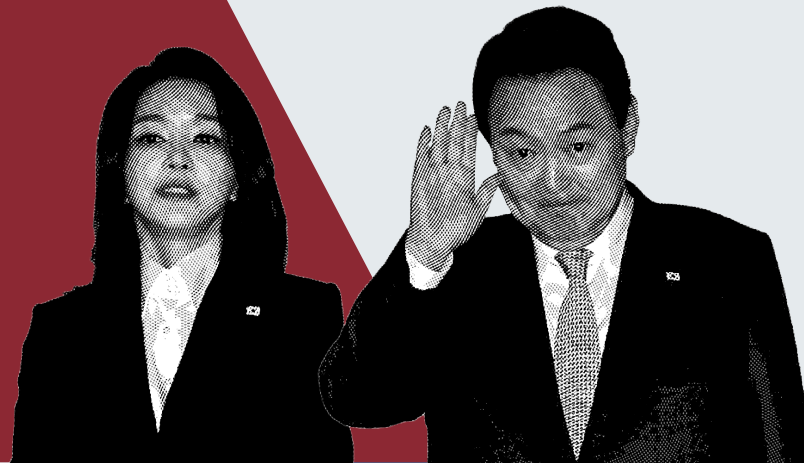


필요하다 필요하지않다 잘 모름

Q.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부부의
범죄사실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54.5



야당 독주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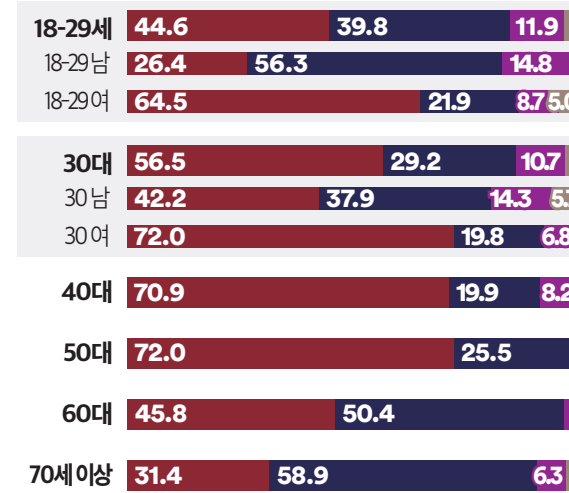
36.7

기타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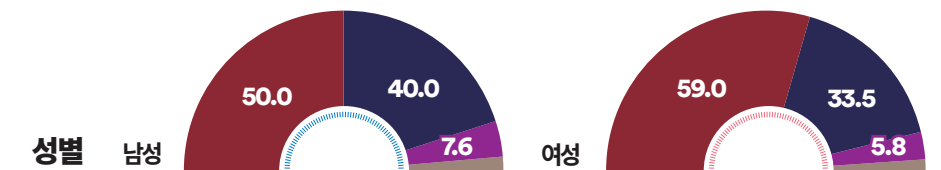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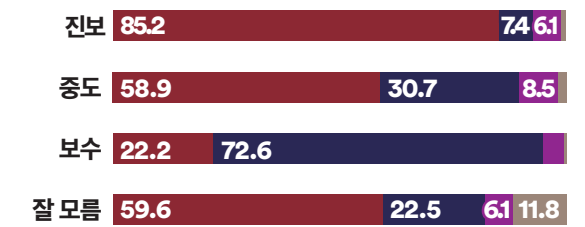
잘 모름 2.1

전체 응답자 절반이상이 계엄선포 이유에 대해 '대통령 부부의 범죄사실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라고 응답
수도권과 호남권, 30-50대 응답층,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대통령 부부의 범죄사실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라는 응답 우세
TK와 70세 이상 응답층, 보수층, 국힘지지층, 18-29세 남성층에서는 '야당 독주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라는 응답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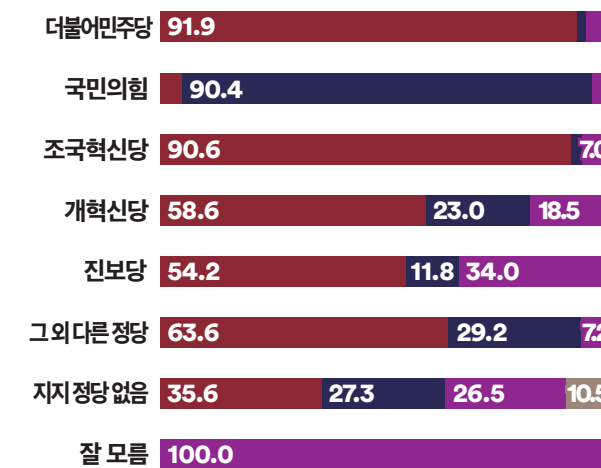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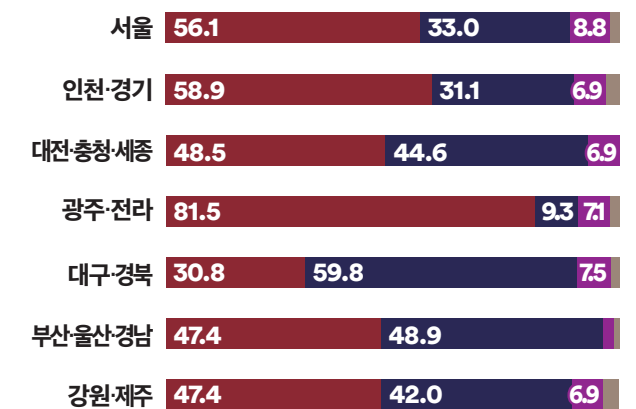
이념성향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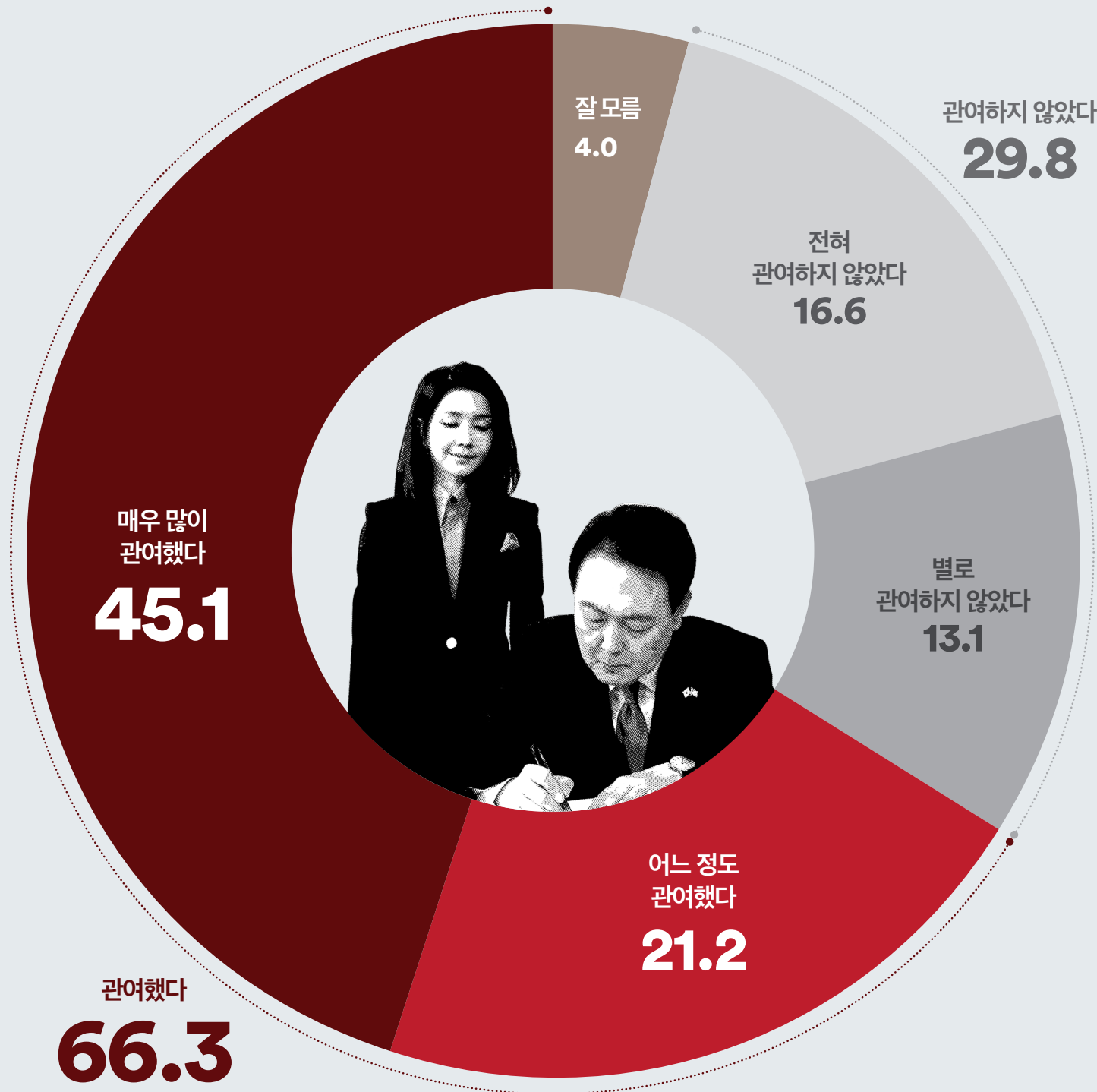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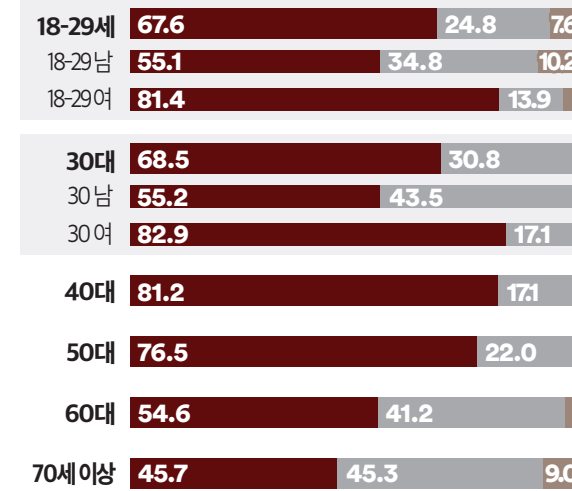
대통령 부부의 범죄사실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야당 독주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타 잘 모름

Q. 이번 비상계엄에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얼마나 관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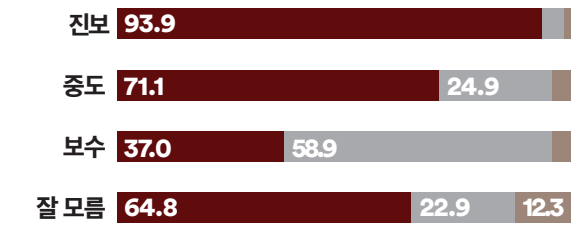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 3명 중 2명은 '비상계엄에 김건희가 관여했다'고 압도적으로 응답(응답 간 격차: 36.5%p)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과 60대 이하 모든 연령층에서 '관여했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TK와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는 두 응답이 팽팽하게 나타남
 국민의힘 지지층(72.1%), 보수층(58.9%)에서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응답 우세
 30대 이하 남성층에서는 10명 중 5명, 여성층에서는 10명중 8명이 '관여했다'고 응답해 성별간 차이를 보임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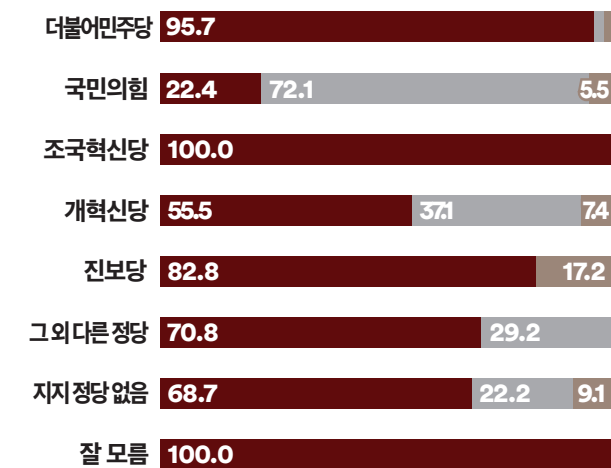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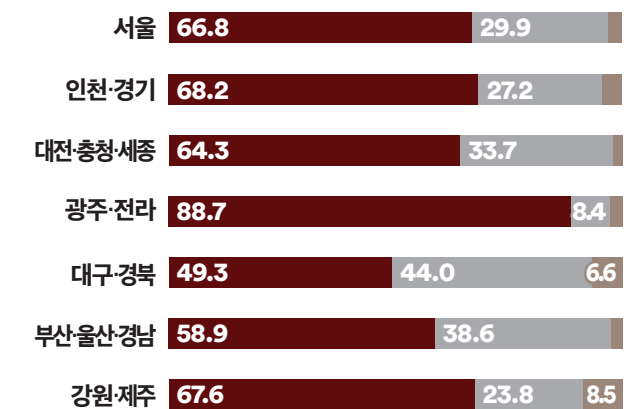
성별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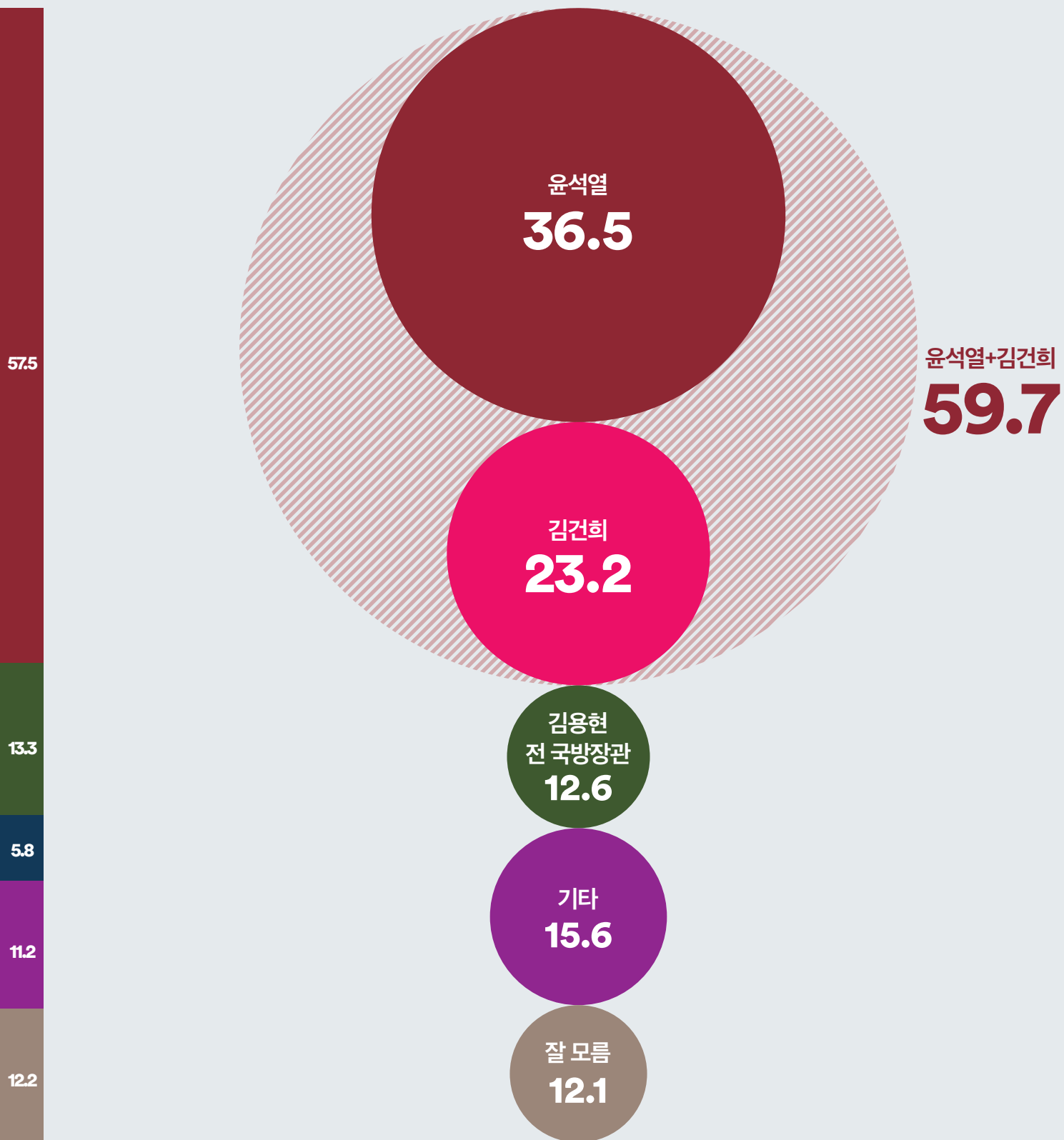


권역



■ 관여했다 ■ 관여하지 않았다 ■ 잘 모름

Q. 한동훈, 이재명 등 정치인과 언론인, 현직 판사 등이 포함된 계엄 체포 명단의 작성을 누가 주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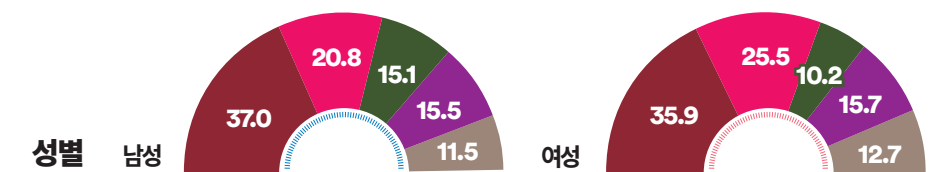
*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체포명단을 작성한 사람은 '윤석열+김건희(59.7%)'일 것이라고 응답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과 모든 권역에서 '윤석열'이라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50대 응답층과 진보층,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윤석열'과 '김건희' 응답이 비등하게 나타남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는 '기타', '김용현', '잘 모름', '윤석열', '김건희' 순으로 나타남

연령

18-29세	36.6	9.9	22.2	15.1	16.3
18-29남	31.3	7.0	29.0	20.1	12.6
18-29여	42.4	13.1	14.7	9.6	20.3
30대	46.2	21.5	8.5	14.2	9.6
30남	49.6	10.3	9.1	19.9	11.2
30여	42.5	33.7	7.9	8.2	7.8
40대	44.3	32.0	8.5	10.7	
50대	36.9	37.3	8.2	13.6	
60대	26.8	23.2	13.6	23.7	12.6
70세이상	28.4	10.0	20.8	18.7	22.1

이념성향

진보	45.0	43.7			
중도	43.7	20.5	11.1	15.4	9.4
보수	18.9	12.0	21.2	27.5	20.4
잘 모름	34.0	19.4	14.6	8.0	24.0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52.2	39.7			
국민의힘	13.7	24.3	35.5		24.1
조국혁신당	42.6	48.4			
개혁신당	63.6	7.9	14.2	14.2	
진보당	48.3	34.5		17.2	
그외다른정당	21.7	27.9	21.2	14.9	14.3
지지정당없음	37.6	9.9	16.5	15.4	20.7
잘 모름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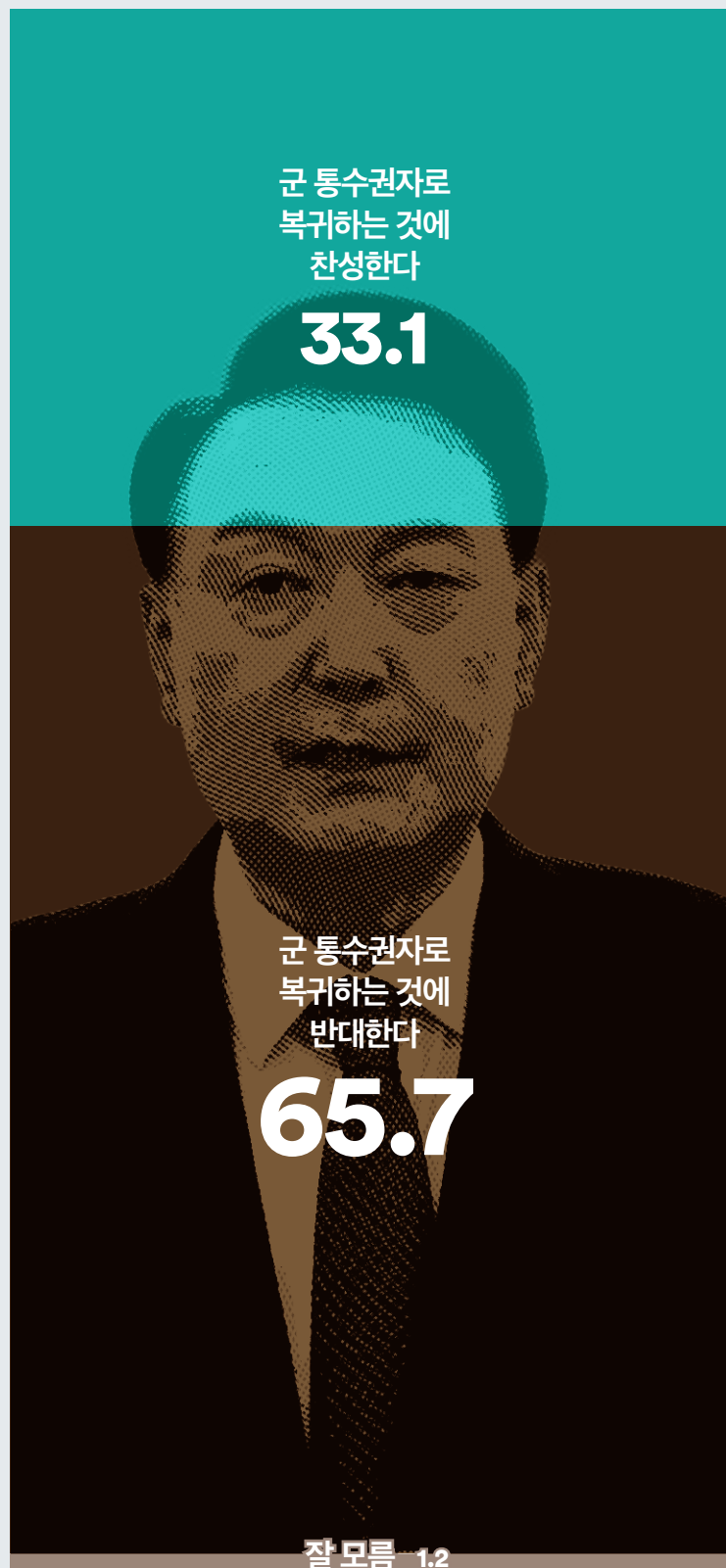
권역

서울	35.4	26.2	12.8	14.9	10.7
인천-경기	40.8	23.8	11.6	14.1	9.7
대전-충청-세종	34.8	21.4	13.1	17.2	13.5
광주-전라	44.1	34.8	6.2	7.8	7.1
대구-경북	29.0	12.8	19.4	20.5	18.3
부산-울산-경남	29.7	19.2	14.5	19.6	17.0
강원-제주	35.4	21.5	10.6	18.1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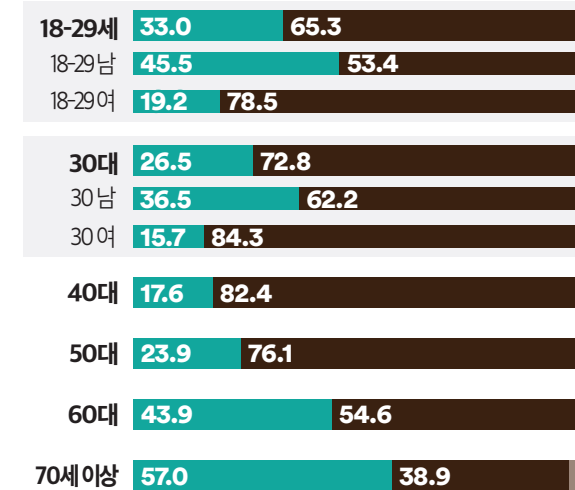
* 101차 정례조사 결과(2025.2.7-28 진행: 보기는 윤석열/김용현/여인형/기타/잘모름으로 구성)

Q. 윤석열이 군 통수권자로 복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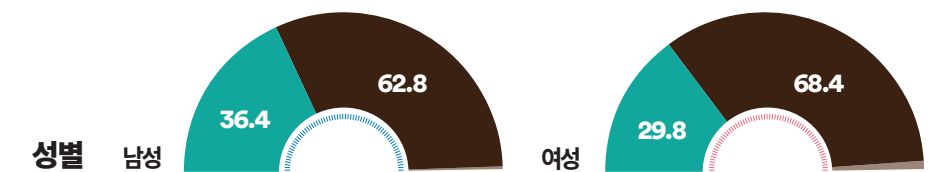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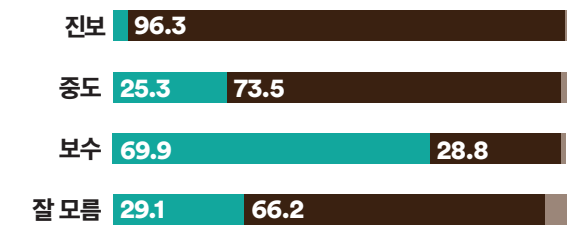


* 전체 응답자 3명 중 2명은 '윤석열이 군 통수권자로 복귀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압도적으로 응답(응답 간 격차: 32.6%p)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 남·녀 모두에서 '복귀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복귀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진보층(96.3%)과 중도층(73.5%), 지지정당이 없다고 한 응답층(73.8%)에서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84.6%), 보수층(69.9%)은 '군통수권자 복귀에 찬성한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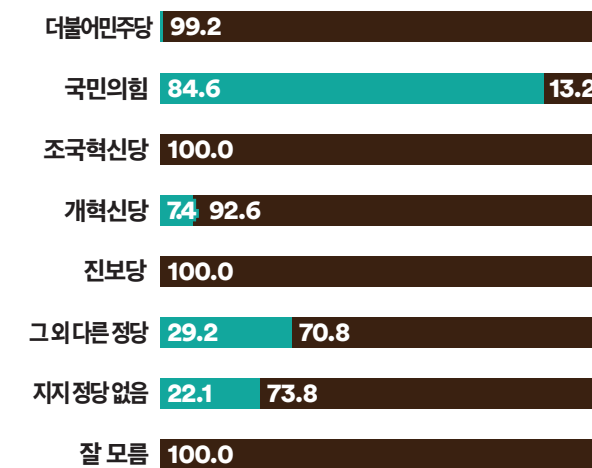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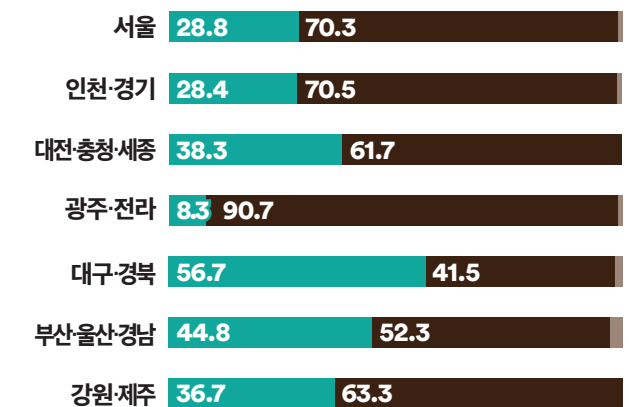
이념성향



정당지지도



권역



* 101차 정례조사 결과(2025.2.7-28 진행)

■ 찬성한다 ■ 반대한다 ■ 잘 모름

WWW.
FLOWERRESEARCH.
COM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WR_202502_03
